



프랑스에서 한류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케이팝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등이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극장 피블리시스 시네마에서 영화 '공작'(왼쪽 큰 사진 속 동그라미)이 상영중이다. 2 '공작' 상영표. 3 파리한국영화제에서 한국감독이 관객과 대화하는 모습. 4 파리한국영화제를 참석하기 위해 출몰하는 현지인들. 파리(프랑스) |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사진제공 | 파리한국영화제

#해시태그 컷



유리 '아주머니' 멋지네!

#스포츠동아 #소녀시대 #유리 #이혜영 #아주머니팬션

이 노래 김연자·'아모르파티'

수능금지곡 '아모르 파티' 올해도 '중독성 갑' 1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도 이들을 뒷바라지한 학부모도 모두 긴장의 연속이다. 떨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음악 감상도 좋지만 그렇다고 아무 노래나 들을 순 없다. 이른바 '수능 금지곡'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수험생이 들어선 안 되는 곡으로 첫 손에 꼽히는 노래가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다. 중독성이 워낙 강해 한 번 들으면 그 멜로디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계속 중얼거리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반응이 줄곧 증명되고 있다. 최근 음악플랫폼 지니뮤직이 10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을 앞두고 피해야 하는 중독성 갑(갑) 노래' 조사에서 '아모르 파티'가 어김없이 1위에 올랐다. 총 1142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328표(29%)를 얻었다. 뒤를 잇는 곡도 전부 중독성 강한 노래들이다. 태진아의 '진진자라', 레드벨벳의 '덤덤', 프로듀스101 시즌2 주제가 '나야 나', 동요 '핑크퐁 영어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아모르 파티'가 수능 금지곡이 된 데는 반복되는 노랫말의 영향이 크다. 가사의 주요 구절마다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반복해 나온다. 멜로디 역시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다. 중독성이 강해 이에 빠지면 자칫 시험에 집중할 수 없을지 모를 일이다. '아모르'라는 단어의 어감도 마찬가지로. 평소 알고 있는 문체에도 실수하는 마당에 '아몰라'를 연상케 하는 가사의 어감이 수험생들 반가를 리었다.

수능이 다가오면 금지곡으로 더 자주 거론되지만 덕분에 '아모르 파티'의 유명세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 어떤 이유에서 금지곡이 됐는지 찾아보고, 직접 들어보려는 이들의 선택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혜리 기자

편집 | 김청조 기자 mirigram@donga.com

'방탄' 공연만? 영화·드라마까지 울킬 중

'미스터션샤인' '...감빵생활' 열풍 샹젤리제 극장선 '공작' 인기 상영 40대 교민 "현지 젊은이 한류 열풍 방탄 공연은 '암표 관람'까지 불사

"한국드라마가 인기 많아요."

프랑스 파리에 사는 40대 후반의 교민 문 모씨는 최근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드라마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통역 업무로 현지인과 한국인을 이어온 문 씨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는 '굿 닥터'. 2013년 국내에서 방송한 드라마의 미국 리메이크작을 본 이들이 원작에 대한 호기심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문 씨는 "IT강국으로서 한국의 이미지가 몇 년 전부터 크게 높아졌다"면서 드라마 등 문화에 대한 관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한류가 프랑스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가

고 있다. 한국영화와 케이팝에 대한 일부의 관심은 소구의 폭을 더 넓히고, 드라마와 방탄소년단 등으로 새롭게 얻은 시선은 전반적인 한국문화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제13회 파리한국영화제에서 통역 및 자막 번역 자원봉사자로 일한 김아람 씨는 12일(현지시간) "한국영화나 드라마가 현지 마니아 혹은 아시아 출신 등 일부의 인기를 모았던 이전과는 크게 다르다"면서 "한류 콘텐츠 수용층이 더욱 폭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초반 현지에서 이름을 얻기 시작한 홍상수 감독을 비롯해 2003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이후 이창동·봉준호·류승완 감독 등이 소개되며 한국영화는 외연을 넓혀왔다.

실제로 올해 8월 현지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두 달여간 상영됐다. 현재 윤종빈 감독의 '공작'도 파리의 대표적인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의 극장 피블리시스 시네

마에서 상영 중인 6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회차로 선보이고 있다. 뒤이어 김의석 감독의 '죄 많은 소녀'와 홍상수 감독의 '풀잎들'이 이달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들 교민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굿 닥터'를 비롯해 '미스터 션샤인'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이 화제작이다. 현지의 관심은 '천국의 계단' 등 2000년대 초반 드라마까지 호환하고 있다.

한국드라마가 띄운 열기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와 인터넷에서 시작된다. 최근 한국시장을 겨냥해 적극적인 공략에 나선 넷플릭스는 이미 프랑스시장에 안착한 지 오래다. 이를 통해 한국드라마 등 콘텐츠가 현지에서 소개되면서 팬층이 늘고 있다고 교민들은 전했다. 이는 다시 해당 작품의 연기자가 아닌 연출자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 이전 작품을 찾아보는 단계에 이르렀다. 파리한국영화제 홍보담당

자원봉사자인 문준호 씨는 "현지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감정의 진폭이 큰 한국 드라마에서 감흥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또 다른 한류의 확대 가능성을 점쳐게도 한다. 현지 부유층 청소년들이 부모를 졸라 티켓을 구매하거나 비싼 값의 암표를 콘서트를 관람할 정도로 교민들은 입을 모았다.

물론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현지 한류를 이끄는 건 아니다. 실제로 갓세븐 등 일부 케이팝 아이돌 그룹이 현지에서 수시로 콘서트를 열고 있다. 김 씨는 "한류가 아직 주류문화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매력적이라는 현지의 일반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관심이 커져가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문 씨는 "지금, 한류 콘텐츠가 가장 '핫'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파리(프랑스) |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관객 500명뿐이었던 '파리한국영화제'...13년후 '1만5000명' 배곡

한국영화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주역이라 평가받을 이들이 있다. 2006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영화를 자발적으로 현지에 알리려 파리의한국영화제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13년째 영화제를 꾸려왔다.

영화제는 10월3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6일까지 파리 샹젤리제 피블리시스 시네마를 상영 거점 삼아 개막작 '안시성'을 비롯해 '1987' '소공녀' '너의 결혼식' 등 모두 62편의 한국 장단편영화를 소개했다. 배우 최은희의 작품을 모은 회고전과 함께

'안시성' 김광식, '1987' 장준환, '소공녀' 전고운 등 감독들을 직접 초청해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무대도 열었다.

4회 때인 2009년부터 일해 온 김아람 씨와 올해 처음 합류한 문준호 씨는 12일 "한국영화의 현재 흐름은 물론 다양성을 알리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김 씨는 "한국영화는 폭력적 반전 스토리라는 이미지를 얻기도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복합적 장르가 어우러지면서도 흥미롭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다른 의미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안시성" 등 대작의 경우 영상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여기에 '박화영' '소공녀' 등 "한국사회의 또 다른 이면"을 드러내는 영화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로맨틱 코미디 '너의 결혼식'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면서 장 르적 성과도 소개했다.

실제로 파리한국영화제는 첫 해 500명에 불과했던 관객이 해마다 늘어나 올해에는 모두 1만5000여명이 상영작을 관람했다. 관객의 대부분이 20~30대라는 점도 전망을 밝게 한다.

2006년 유학생들 자발적으로 운영 '한국영화 영상기술력·다양성 인정'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이들의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프랑스 한국문화원 그리고 일부 기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지만 운영기금은 늘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40여명의 자원봉사 스태프가 영화제를 이끌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프랑스인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지인들의 자원이 늘고 있다.

이들은 "현지 배급사 측이 판권 구매를 문의해오기도 한다"면서 "앞으로 독립영화 등 다양한 한국영화를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리(프랑스) | 윤여수 기자

신하균·김선아, 연말 안방극장으로...

'나쁜 형사' 신하균, 열혈 형사로 '붉은달...' 김선아 스틸러물 도전

배우 신하균과 김선아가 연말 안방극장으로 향한다. MBC가 새롭게 시작하는 두 편의 미니시리즈 주연인 이들은 20년에 이르는 연기활동으로 대중적인 인지도와 실력까지 갖춘 베테랑이다. 올해 평일 밤 10대 드라마에서 유독 극심한 시청률 부진을 겪은 MBC가 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유종의 미를 거둘지 시선이 쏠린다.



신하균 김선아

신하균은 12월3일 시작하는 월화드라마 '나쁜 형사'로 시청자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하면서도 형사 역할과는

크게 인연을 맺지 않은 그가 강력범죄 걸거울 1위에 빛나는 열혈 형사를 맡은 사실에 호기심을 자극한다.

드라마는 '살인마보다 나쁜 형사'로 불리는 주인공과 천재 사이코패스가 위험한 공조 수사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영국 BBC 드라마 '루터'를 원작 삼은 수사물이다.

신하균의 드라마 출연은 2016년 tvN '피리부는 사나이' 이후 2년만이다. 제작진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은 뒤 이야기와 캐릭터의 매력에 빠져 출연을 결심했다. 대본을 공동 집필하는 허준우, 강이현 작가는 "거칠고 마초적이면서도 특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바랐다"며 "신하균은 완벽

한 캐스팅"이라고 기대를 걸었다.

신하균 보다 먼저 나서는 이는 김선아다. 21일 시작하는 수목드라마 '붉은 달 푸른 해'는 김선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한 아이가 얽힌 의문의 사건을 마주한 아동 상담사인 주인공이 시(詩)를 단서로 진실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김선아는 최근 출연한 '키스 먼저 할까요', '품위 있는 그녀' 등 드라마를 연이어 성공으로 이끈 주인공. 여기에 시청자의 공감까지 이끌어내면서 '시청률 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MBC로서도 김선아의 복귀는 물론 '붉은 달 푸른 해'에도 내심 기대를 쏟고 있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